



女行

여자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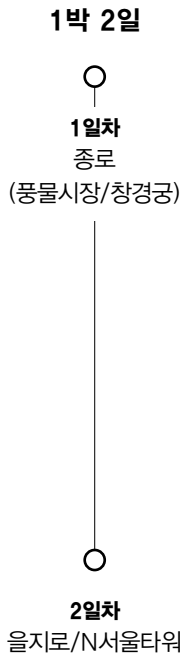
시간을
기억하는
서울편
도시

(주)케이앤제이서울이 이 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합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책에 실린 사진, 글,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K&J Seoul all rights reserved.

Issue
No. 6



시간을 기억하는 도시
S E O U L



1
일
차



* 조계사 역 버스정류장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도시, 서울.

역사가 흐르는 세계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서울에 대해 알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번 여행에서는 거대한 건물들과 화려한 불빛들을
뒤로하고 서울의 과거로 떠나보려한다.

이틀간의 서울의 기록.



傳統

시간을 기억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웃고 떠들며 정을 나누는 사람들.
 응답하라 1988.

생각만으로도
절로 웃음이 나는
시절.



뉴트로(New-tro),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말한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도 바로
지금쯤 두고 이야기하는 말 같다.
최근 동묘시장이나 광장시장엔 구제 옷
을 구하러 온 젊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곳 풍물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풍물
시장에서는 오래된 것일수록 더 가치를
인정받는다. 마치 70-80년대로 타임
캡슐을 타고 온 듯한 정겨움 가득한 물

건들로 가득한 이곳은 어렸을 적 할머
니 집에서나 구경했을 것 같은 컵과 그
릇들, 어딘가 한 곳이 망가져 도저히 움
직이지 않을 것 같은 장난감들로 넘쳐난
다. 세월의 물결에 휩쓸려간 과거의 추
억들이 마치 뉴트로 세대를 예언이나 한
듯 당당히 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서울
풍물시장

세월의 저편에서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 서울 풍물시장



두 발자국.

창경궁

서울에는 5개의 궁이 있다.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이 아름다운 궁들은
날이 어두워질수록 더욱 빛난다.
그래서 매년 야간개장을 하는
시즌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궁을 찾는다.

2019년 1월부터
창경궁은 상시 야간개장을 실시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평일밤,
창경궁을 찾았다.
오전 내내 따뜻하던 날씨가
밤이 되니 쌀쌀해졌지만
여기저기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궁 언저리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고 있다.
명정문 너머로 은은한 조명과 함께
왕로를 따라 걸으니
밤하늘 아래 창경궁의 매력이
조금씩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은
휴궁일(休宮日)입니다.

청사초롱
불 밝혀라
닐리리야 |



| 창경궁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창경궁





2 일차



이번에 서울에서 묵은 숙소는 인사동에 있었다.
멀쩡하게 집을 놔두고 서울 호텔에서 지낸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 괜시리 들떴고,
더군다나 인사동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인사동은 골동품, 화랑, 고가구점 등이 모여있고,
<쌈지길>이라는 전통문화 쇼핑공간이 있어
한국의 정서를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2월엔 인사동으로.





* N서울타워

세 발자국.

미세먼지로 곤혹을 치르는 요즘,
꽃샘추위로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오늘은 명동을 시작으로 N서울타워에 가보려한다.

외국에 가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타워가 하나쯤은 있기 마련인데
서울에는 N서울타워가 있다. 버스를 타고 남산으로 올라가면
바로 타워를 만날 수 있다. 타워 광장에서는 사물놀이와
전통 검술 공연이 한창이었다. 주말이라고 나들이 나온 가족들,
쌀쌀한 산바람에 부둥켜안고 걸어가는 커플들,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벤치에 앉아 있는 외국인들 등 많은 사람들이 이곳 N서울타워를 찾았다.
모두들 밝은 얼굴로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는걸 보니

서울에도 조금씩 봄이 찾아오고 있나보다.





다
시
서
울
을
견
다



네 발자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동

최근 을지로는 힙지로라 불릴 만큼 젊은이들이 좋아할만한
예쁜 카페와 예술공간 등이 많이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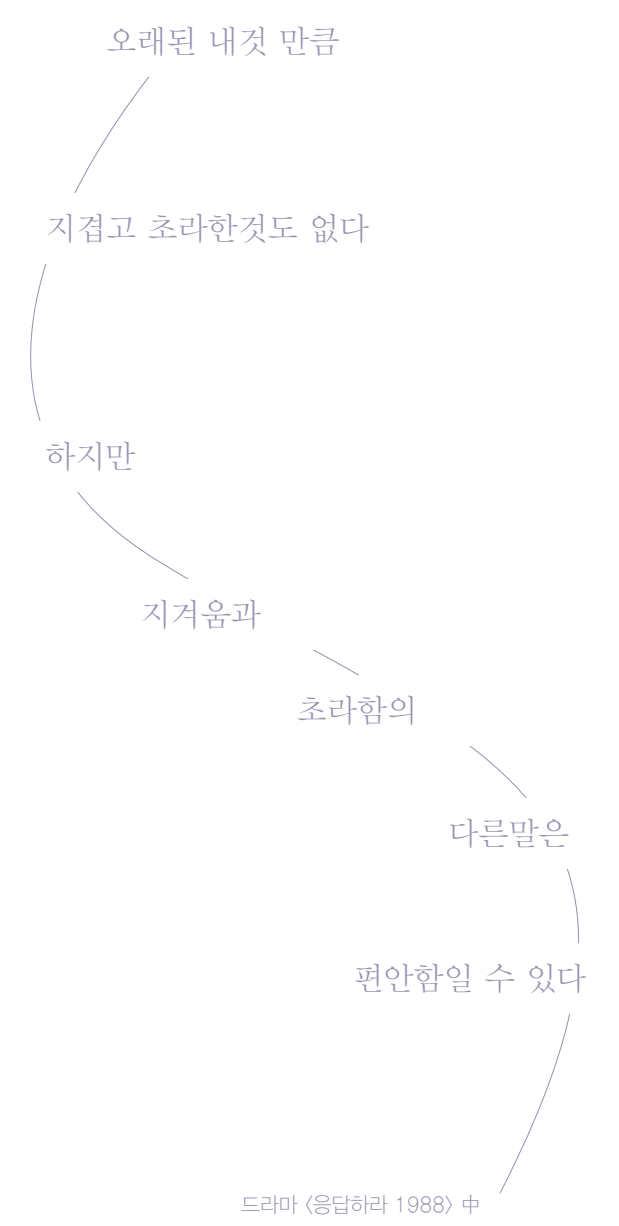
기쁜일이라고 생각했던것과는 달리
어쩌면 을지로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공구 골목, 조명거리, 인쇄소 골목이 재개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곳의 오래된 역사를 지워가면서 발전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름도 예쁜 을지로.
오래오래 우리곁에 있어주길...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최첨단 IT기술이 넘쳐나는 곳,
여유와 따뜻함이 묻어있는 거리와
인정넘치는 사람들.
서울은 이렇게 다른 서로가
어깨동무를 하며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살아가며 마주칠
서울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된다.

당신이 마주하고 싶은 서울은
어떤 곳인가요?



별다른 할일도 없어
그냥 이렇게
서울구경,
참 많이도 다녔네.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쏟아진 서울, 노래>



B E H I N D

비 하 인 드

Behind.1

을지로 길을 건다 아주 좁디 좁은 골목 안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와 발걸음을 멈췄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니 커피한약방이라는 카페와 헤민당이라는 양과자점이 마주보고 서있다. 커피한약방에서 커피를 사서 맞은 헤민당에서 커피와 케익을 먹었다. 80년대 다방의 분위기가 넘쳐흐르는 비밀스런 공간이다.



Behind.2

여행의 시작은 합정역이었다. 합정역 지하철역을 들어가려는 순간 줄지어 서있는 오토바이 군단을 마주했다. 추위도 한풀 꺾였으니 바이크 타기 딱 좋은 날씨이다. 저렇게 다같이 줄지어서 어디까지 가는걸까? 내심 부럽다.



Behind.3

쿵쿵!
낮익은 냄새가 코를 스쳐 지나간다. 고개를 돌려보니 인쇄소에서 기계가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다. 나는 이 잉크 냄새가 좋다. 신입시절 열심히 교정을 보러 다녔던 때가 생각도 나고, 기계에서 나오는 따끈따끈한 인쇄물을 보면 기분이 좋기 때문이다.



Behind.4

창경궁을 향해 걸어가던 밤거리, 서울의 밤은 굉장히 낭만적이다. 자주 갔던 미술관도 밤에 보니 색다르게 느껴진다. 일본여행을 다닐 때는 상점들이 문을 일찍 닫아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서울은 그 부분에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늦은 밤 어딜 들어가도 반가운 목소리로 "어서오세요"를 외쳐주는 멋진 도시!



서울
SEOUL
—
Seoul
has
Soul